

모든 위기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Ahmed Bin Sulayem, DMCC 회장 겸 CEO

DMCC가 아랍 에미리트 최초의 금화를 출시한 이후 8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셰이크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초상화가 새겨진 금화의 뒷면에는 당시 완공된지 얼마 안 된 버즈 칼리파가 그려져 있습니다. 버즈 칼리파는 우리의 원대한 야망을 표현하는 상징이자, 오늘날 가장 유명한 국가적 상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후 DMCC는 UAE 부통령 겸 총리이자 두바이의 통치자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의 초상화와 함께 버즈 칼리파와 비슷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 팜 주메이라 섬을 새긴 두 번째 주화를 발행했습니다. DMCC의 Dubai Good Delivery (DGD) 표준 공인 회원인 스위스 제련소 아고르 허레이어스에서 주조하였으며 모두 99.99%(24 캐럿)의 순금 인증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주화는 뛰어난 선견지명으로 유명한 지도자를 기리고, 전 세계 금 거래의 중심지 중 하나로 자리잡은 두바이를 기념하고자 디자인하여 출시하였습니다. 특히 저는 회장으로서는 DMCC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금이 우리가 발전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두바이를 진정한 글로벌 황금 중심지로 만드는 데 기여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애쓰고 있지만, 모든 위기 상황에서 항상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은 2,500년 넘는 역사를 통해 귀중한 재화였지만, 경제적 변동이 심한 시대에 기관들이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비교적 최근부터입니다. 또한 오래 전부터 개인이 금 세공품에 투자할 수 있었지만, 현대적인 금화 주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1967년 최초로 남아프리카 크루거랜드를 발행하면서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국가에서 고유의 금화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금화마다 순도와 무게는 각각 다르지만, 모든 금화는 시장이 심하게 변동하는 상황에 대비해 개인이 투자 수단을 확보하고 위험 부담을 낮추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통된 상징을 이용해 결속력을 표현하는 각 국가의 금화는 중국의 골드 판다 금화나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필하모닉 금화, 캐나다의 메이플 리프 금화와 같이 버즈 칼리파나 팜 주메이라만큼이나 중요한 랜드마크 이미지를 선보입니다. 국민들은 각 금화를 통해 투자 기회를 얻어 투자를 다각화하는 동시에, 각 국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랍 에미리트에 자국민만 거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곳을 고향으로 생각하는 오래 거주한 모든 외국인 거주자가 국적과 종교의 경계를 뛰어넘어 모두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코로나 19가 대유행하기 시작한 초기에 “아랍 에미리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을 제 2의 고향으로 생각해 주기를 우리 모두는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아부다비 왕세자 겸 UAE 군 부사령관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는 언급하였습니다.

비록 현재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랍 에미리트 금화는 이 불확실한 시기에 모든 국민이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일 것입니다. 또한 국립 은행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을 통해 아랍 에미리트 금화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유감스럽게도 올해는 라마단 마지막 날인 이드알피트르에 왕궁을 방문하여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에게 경의를 표하는 전통을 처음으로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이날 저녁 버즈 칼리파의 프로젝션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선견지명을 발휘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펼치고 있는 아랍 에미리트 정부에 고마움을 표시할 예정입니다.

DMCC를 대표하여, 부디 가정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명절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www.dmcc.ae